



21세기 '꿈의 선박' 위그선 5년뒤에 뜬다

오는 2010년까지 1,700억원 투입, 개발

오는 2010년 바다 위를 나는 '꿈의 선박' 위그선(WIG선·Wing in Ground Effect Ship)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1700억원이 투입돼 건조 및 상용화가 이루어 질 100톤급 대형 위그선 사업에 최근 한진중공업,STX, 삼성중공업, 한국화이바 등 국내 굴지의 조선·첨단소재 업체 4개사가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주무 부서인 해양수산부는 이들 업체에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해 개발비의 절반을 부담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각 업체도 향후 수익성을 감안해 참여에 적극적이다. 개발작업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조선, 정보기술(IT), 소재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능력과 시장경쟁력을 겸비한 위그선 상용화의 최적국으로 평가받아 왔다. 국내 대부분의 조선업체는 이미 수직적의 군사용 공기부양정을 만든 경험이 있어 위그선 개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위그선 제작의 기초 기술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라면서 5년 뒤 상용화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그선은 수면이나 지면 위에서 5m 남짓 떠 있을 때 날개가 공기저항을 최소한으로 받는 동시에 최대의 부양력을 얻는다는 표면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간 핵심 기술을 축적해 왔다.

위그선이 상용화되면 기존 선박이 도달할 수 없는 시속 25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어 '속도 혁명'을 불러올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송시간과 운송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동북아 물류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타당성 조사결과 대형 위그선을 상용화할 경우 2010년 이후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생산효과가 발생하고, 연 평균 3500여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상장사 1인당 매출액 세양선박이 1위 종업원 영업이익은 대한해운이 2위

올해 1분기 종업원 1인당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린 기업은 세양선박, 영업이익 을 많이 벌어들인 기업은 한국가스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12월 결산 566개 상장사 중 금융업 등을 제외한 522 개사를 조사한 결과 세양선박 직원들은 평균 25억37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한 국가스공사 직원들은 평균 1억 6200만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양선박 종업원은 25명으로 지난 1분기 총 63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1인당 평균 25억3700 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다음으로 212명의 SK가스 직원이 총 4663억원의 매출을 올려 평균 22억원, 티 직원(216명)은 총 4418억원의 매출액을 올려 평균 20억46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창출한 기업은 1억6200만원을 벌어들인 한국가스공사다. 다음으로 대한해운(1억5900만원) SK텔레콤(1억4300 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